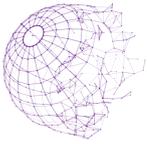


F R E P O R T



FTA 동향

-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레깅스의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상 타결
-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 국가별 동향 : 미국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관세청은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¹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관세청은 우수 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² 25개 품목에 대해 9월 7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를 개정(9.7일 시행)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³(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관세청 친환경 정책 개요]

① 친환경기업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관세분야 세정지원 탄소저감정책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대상 선정
② 불법수출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 낭비 유발 불법 기자재 통관관리 환경오염유발·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
③ 그린 관세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없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탄소배출·에너지 절감 친환경 감시정 도입

- 1 세계관세기구에서 환경정책과 세관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그린 커스텀즈' 의제 : ① 태양에너지, 전기차 사용, 재활용 등 세관 운영 측면 조치사항, ② 세관절차 디지털화, ③ 친환경 관련 산업 감면, ④ 환경위해물품 단속 등
- 2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 3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입증자료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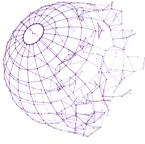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에 추가된 '우수재활용제품' 품목 및 인증서류]

구분	우수재활용제품
대상 품목 (25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재활용 메타크릴산메틸(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폐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패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인증서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의정서 발효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의정서⁴)」가 2023.9.10.(일)자로 발효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⁵ 상호인정약정⁶(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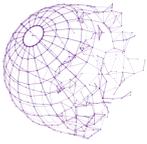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유럽연합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기준)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레깅스의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관세청은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가 9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 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용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⁷)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⁸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7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8 우리나라는 제70류의 안전유리로, 일부 국가는 제85류 등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의견 제시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⁹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¹⁰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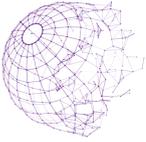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9 현재 레깅스는 바지(품목번호 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 내의(품목번호 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5.2%), 양말류(품목번호 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10 [예시] 갑씨는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됨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다음을 논의했다.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¹¹,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¹²)」체결, ②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③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③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본 회의에 앞서 고광호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 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호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9월 22일(15:00~16:00, 현지 시각)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이다.

최근 9월 7일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 9월 11일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9월 19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되며 양국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②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③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¹³(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④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세관상호지원협정¹⁴ 개정) 양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¹⁵를 반영하기 위해 '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3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 등 97개국이 도입 중

14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유럽연합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기준)

15 한-우즈베키스탄 간 교역 규모 : ('08) 11.2억 달러 → ('22) 22.1억 달러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관세분야 기술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양국 간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즈벡측은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송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기술,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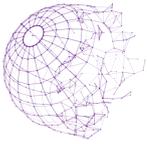
③ (AEO·FTA 협력) 양 관세당국은 각국의 AEO 제도 및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 향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동 제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국제협력 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호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9월 25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¹⁶,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¹⁷) 전면 이행 협력, ②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③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¹⁸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 '19.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 진행 단계에 있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18 전면 이행시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AEO 기업에게 적용 개시

한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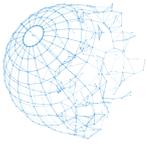
③ (위험관리·FTA 경험 공유)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목)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¹⁹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compa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19 전구물질 배출량 :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 7.(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21년 10월 양허 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여러 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을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²⁰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다.²¹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²²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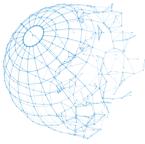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21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USGS)

21 자유화율: (품목 수 기준) 한 94.8%,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필 97.6%

22 필리핀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2022년) : 36.6만 대(전년 대비 28% 증가)

- 브랜드별 순위 : ①도요타 ②미쓰비시 ③포드 ④르노-닛산 ⑤스즈키 ... ⑨현대차·기아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상 타결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²³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²⁴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 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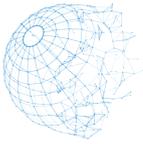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라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 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3 (기존 중미 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24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하기로 합의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9.21.(목) 16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측은 지난해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9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머크·사토리우스 등 유럽의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對)유럽연합(EU)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양국이 교역·투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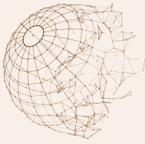
*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억 달러) :
(19)61.3 → (20)78.6 → (21) 102.2 → (22) 94.5

** '23.1~7월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완제의약품 166.7%, 원료의약품 15.6%

이어 우리 측은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유럽연합(EU) 약사법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제안한 핵심의약품법의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EU 의료기기법(MDR)의 인증기관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美 급성장하는 대체 커피 시장에서 찾는 기회



미국의 대체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커피의 향과 맛은 거의 같지만 다양한 종류의 허브 또는 버섯 등을 주 원료로 만든 대체 커피(coffee alternative)가 원두없는 커피(beanless coffee)로 불리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이 시장조사기관 스탯이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소비자 기업에 대체 커피 제조 회사인 MUD/WTR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 **전통적이지 않은 커피,
전통을 깨는 기업 문화**

MUD/WTR은 30대의 젊은 창업가 셰인 히스(Shane Heath)가 건강한 대체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8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설립한 회사다. 테크 회사 근무 시절, 자신과 동료들의 카페인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두근거림, 초조, 불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커피 창업을 시작한 그는 최근 여러 인터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MUD/WTR이라는 스타트업이 급성장한 데는 전통적이지 않은 회사 문화도 눈길을 끄는데 이 기업의 독특한 문화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론 신입 직원들에게 45분간의 웰컴 명상 호흡 세션 제공, 격주로 전직원 금요일 휴무, 근무지 선택 자유(분기별 대면 미팅), 피검사를 통한 코르티졸(스트레스 호르몬) 테스트 및 수면 점검 등이다. 웬만한 스타트업들보다 팀과 복리후생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히스 대표는 "숙련된 직원을 잃는 비용이 회사에 가장 큰 적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베푼이를 주는 것은 마치 겉보기에 비싸 보이지만 실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은 뻑새다'는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야한다"고 자주 말한다.

▶ 업계 '왕좌'는 누가 차지할까?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미국은 물론 여전히 명실공히 세계 1위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대체 커피 시장의 1위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대체 커피 브랜드별 점유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대체 커피는 2019년 스타벅스의 본고장 시애틀에서 시작된 분자 커피 애토모(Atomo)가 먼저 이름을 알렸다. 환경을 강조하며 푸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실험을 통해 커피 맛을 완벽 재현했다는 애토모 커피는 2019년 브랜드 론칭 후 2021년 9월 온라인으로 콜드브루 대체 커피를 제한적 판매 시작, 2022년 정식 소매 판매를 시작했다.

대체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존 커피 시장 장벽을 넘기 위한 실험으로 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와 애토모 커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70%라는 압승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커피 업계에 도전장을 냈다. 콜드브루 오트밀크 라떼를 포함한 3종류의 콜드브루 캔커피만을 출시한 애토모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품은 모두 품질된 상태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신생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며 업계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유 있는' 대체 커피 시장의 성장

전 세계적으로 대체 커피 시장 규모는 2022년 27억 달러를 달성했다. 2030년까지 5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8.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체 커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욕구는 크게 증가했다. 커피 원두 재배와 수확 추출 등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카페인이나 이노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체내 무기질 균형을 깨뜨려 눈 떨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장 두근거림, 근육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대체 커피 업체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대체 커피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존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인 ESG 경영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애토모 커피사에 따르면, 대체 커피 콜드브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은 전통적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94% 적다. 탄소 배출 감소량도 93%에 달한다. 커피나무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숙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애토모사 대표는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농장은 기존의 농장을 버리고 계속해서 더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반 커피 원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삼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두 가격 인상) 국제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세계 최대 로부스타 원두 생산국인 베트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 가격 폭등으로 원두 재배 대신 수익성 좋은 작물로 재배를 대체하며 원두 수확량이 최근 4년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세계 2대 로부스타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 피해, 곳곳의 산불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로부스타 원두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맛) 커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커피의 바디, 색, 향, 맛은 물론 생체 활성 영양소까지 구현했다는 것이 애토모커피의 주장이다. 뒤이어 등장한 버섯 커피 'RYZE'사 등 경쟁업체들도 맛과 풍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미국의 주요 대체 커피 업체

브랜드명 개요

MUD/WTR

MUD/WTR은 건강한 대체 커피를 만들겠다는 셰인 히스(Shane Heath) 대표의 목표로 2018년 설립됐다. 회사 설립 전 테크 회사에 근무했던 그는, 카페인 중독이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창업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주 재료는 유기농 카카오, 마살라 차이, 차가버섯, 강황, 시나몬 등이다. 웹사이트(www.mudwtr.com)에서 40달러에 판매 중이다.



Atomo

대추씨,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해바라기씨 겉껍질, 수박씨 등을 주재료로 한 대체 커피. 커피 원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커피 원료의 분자 단위까지 분석한 화학 공정을 통해 커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한 '분자 커피'다. 카페인도 함유돼 있다.

공동 창업자인 앤디 클라이치(Andy Kleitsch)와 재럿 스톱포스(Jarret Stopforth)는 식품 과학자와 화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커피계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기치로 창업했다.

2년 이상 동안 1000여 가지가 넘는 화합물을 조사해 커피 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40여 가지 화합물을 찾아냈으며, 연구개발 이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



Ryze

버섯 커피(mushroom coffee)로 알려진 RYZE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두 명의 하버드 졸업생들이 2020년 창업한 회사로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버섯 커피 한 종류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체 설명에 따르면, RYZE 커피는 면역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웹사이트(www.ryzesuperfoods.com)에서 30달러에 판매 중이다.

Teccino

차(Tea) 디자이너 캐롤라인 맥두걸이 시작한 Teccino는 치커리, 캐럽(carob/초콜릿 맛이 나는 암갈색 열매가 달리는 유럽산 나무), 민들레, 라몬씨(ramon seed/뽕나무과 식물의 씨앗) 등의 허브를 주재료로 한 커피 맛 음료이다.

커피와 같은 방식으로 브루잉이 가능하며 인공 감미료나 보존제, 카페인 등이 없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체 커피 외에도 35가지 유기농 차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의 제품은 헤이즐넛 향 대체커피로 웹사이트(<https://teccino.com/collections/herbal-coffee>)에서 14.99달러에 판매 중이다.

자료: 각 업체 웹사이트



▶ 시사점

한국은 '커피 강국'이다. 원두 생산국이 아니지만 커피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 미국의 대체 커피 시장은 블루 오션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과거, 보리를 저온에 볶아 만든 커피 등이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졌지만 세상이 변해 승산이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뉴욕에서 커피전문점 세 곳을 운영 중인 커피 사업가 K씨는 7일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대체 커피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고 실제로 매출 지표를 보면 디카페인 커피와 마차(matcha) 라떼 등의 메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 커피 브랜드와 콜라보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도해보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전미커피협회(NCA)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커피를 마시며 매일 마시는 인구는 62%에 달한다.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3잔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 농무부가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2026년까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커피 소비량이 많은 미국에서 대체 커피가 대중화될 경우, 어떤 업체가 대체 커피 업계의 스타벅스 역할을 하게될 지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National Coffee Association, USDA, Statista, Bloomberg, Business Insider, ICO 등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